

# ‘화재 무방비 무허가건축물’ 3만동 육박... 성북구 최다

(서울)

서울시 예방대책 없이 지침 정비 무허가건축물 관리 소홀 목소리 “자연 소멸까지 단속 보류” 입장

서울시가 오랜 기간 방치된 무허가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 내용에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이 빠져 있어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시내에는 총 2만7208동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져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건물들을 뜻한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법규정이 아닌 지침에 의해 관리된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해당 지침이 지난 18년간 정비 없이 운영돼 무허가건축물이 화재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

관이 제기됐다.

〈자치구별 기존 무허가건축물 현황〉

자치구	동수
성북	3,371
용산	2,732
노원	2,398
관악	2,075
서대문	1,926
동대문	1,664
동작	1,649
중구	1,580
성동	1,573
강북	1,353
송파	1,341
종로	1,240

관이 제기됐다.

지난 2월 14일 중구 을지로4가 인근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개동이 전소됐고 4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건물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이었다.

작년 1월에는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자치구	동수
영등포	1,205
은평	961
마포	793
구로	320
중랑	265
도봉	259
강동	156
서초	125
강서	118
광진	71
금천	23
양천	8
강남	2

자료=서울시

이 화마에 휩싸였다. 총 48개 점포 중 18개가 불에 탔다. 모두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던 가게들이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구청이나 소방서의 안전관리 단속 대상에서 빠져있어 화재 예방에 취약하다. 이날 시에 의하면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성북구에만

3371동이 있다. 이어 용산구(2732동), 노원구(2398동), 관악구(2075동), 서대문구(1926동), 동대문구(1664동), 동작구(1649동), 중구(1580동)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내에 시한폭탄 같은 건물이 3만동 가까이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기존 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과 ‘기존 무허가건축물 행위 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해 무허가 건물들을 관리해왔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은 ▲건축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지침 내용의 조항 변경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시 상속인 이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해 명의 변경 ▲개·보수 업무처리를 ‘기존 무허가건축물 행위 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으로 일원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문책 내용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만 있을 뿐 시민 안전과 관련된 대책은

전무하다.

특히 시는 지침을 수정하면서 “신고 승인내용 위반 등 적출 건수에 따른 과면, 감봉, 견책, 훈계, 경고의 과도한 문책으로 업무처리 시 담당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문책 내용을 삭제했다.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적법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안전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기 어렵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소방설비를 지원한다던가 하면 불법적인 건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하면 가장 좋겠지만 태생부터 무허가로 지어져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에 맞지 않는 건물이 많다”며 “또 토지주와 건축주가 분리된 경우도 있어 손을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은평성모병원 ‘119안심협력병원’ 지정

서울 소방재난본부, 총 5곳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은평성모병원을 ‘119안심협력병원’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울백병원 등 총 4개 병원을 ‘119안심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건강보험공단 비 급여항목을 제외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27개과와 골절 및 외상 등 특수화된 전문 클리닉 9개 분야 등이다.

2018년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결

과 내과 진료가 827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785명(24.3%), 재활의학과 277명(8.6%) 순이었다. 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용 병원별로 보라매병원 14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료원(1378명), 서울백병원(414명), 강남분원(15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향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을 통해 누적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역학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에게 주로 발병하는 질환의 유형을 밝혀내고 질병의 사전예방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오늘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과제 토론회

8년 추진 성과 등 논의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해온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펼쳐질 도시재생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간사인 황희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인제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이 ‘도시재생의 세계적 흐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을, 양용택 서울시 재정정책기획관이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울시 도시재생명예시장인 이창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수습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2015년 전담조직으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164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공유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8년 동안 추진해온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시민과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포스터.

## 스타트업 육성 ‘제2 핀테크랩’ 문 열어

여의도 위워크에 14개 기업 입주 사업화·투자·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여의도에 제2 핀테크랩의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위워크 여의도역점 6층에 자리한 제2 핀테크랩에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기업 3개를 포함해 총 14개의 기업이 입주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글로벌 오피스 플랫폼을 국내 스타트업의 창업 육성 공간으로 조성한 첫 사례라고 시는 전했다.

입주기업에는 최대 2년간 위워크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위워크와 시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인 케이엑셀러레이터의 글로벌 창업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케이엑셀러레이터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해외진출, 홍보 분야에 대한 멘토링, 역량교육, 테드데이 등을



제2 핀테크랩.

/서울시

맞춤 지원한다.

제2 핀테크랩은 성장기에 접어든 핀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연매출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업을 선발했다.

시는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내 위워크 여의도역점 건물 3층에 핀테크랩 사무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은 “제2 핀테크랩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 글로벌 플랫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입주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핀테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해외기업을 서울로 유치하고, 잠재력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 핀테크 산업의 핵심엔커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아파트 면적 넓을수록 주차료 싸다

서울 1851개 단지 주차료 실태 조사

서울시는 아파트 1851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료 실태를 조사해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 이하), 중형세대(60㎡ 초과~85㎡ 이하), 중대형세대(85㎡ 초과~135㎡ 이하), 대형세대(135㎡ 초과)의 4가지로 구분됐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었다. 주차대수와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가 낮아지거나 주차 가능한 차량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컸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42%)로 가장 많았다.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였다.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당 1대는 무료주차 제공되는 경우가 97% 이상이었다. 1대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매기는 소수 단지들은 집 크기에 따라 6400원~2만1300원을 부과했다.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 비율도 높았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일 성평등 오픈컨퍼런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변화의 시작-성평등 대학에서’ 오픈컨퍼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이 서울시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0.3%가 “학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벼운 신체 접촉(18.8%),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품평, 별명사용(18.6%), 가벼운 성적 농담(18.2%) 등이었다. 대학 내 ▲페미니즘·여성주의·성평등 활동 동아리 ▲총학생회 내 여성위원회·성평등위원회 활동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김현정 기자